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5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5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부치는 글 / 법정

가난한 등 하나 / 길상사 연등

사랑의 기쁨 / 이해인 수녀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 5월 호는 특집 편집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 길상사 연등 이야기, 이해인 수녀의 시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길상사 소식으로 꾸몄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1970년과 1971년에 쓴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오늘의 우리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전하셨는지, 무엇을 바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듣고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에 《맑고 향기롭게》 독자 여러분에게 텅 빈 충만, 고요한 천둥소리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6월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지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중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5월 1일 발행, 통권 315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5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부치는 글

법정

5월의 아침은 연둣빛입니다. 신록의 가지 끝에서 빛나는 푸른 햇살이 창문을 열게 하고, 이슬에 젖은 풀꽃 향기가 숨길을 가로막습니다. 숲에서는 피꼬리와 까치가 울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짝을 부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빠꾸욱 빠꾸욱’ 아득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무렵에 듣는 빠꾸기 울음소리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그것은 엄마의 음성 같은, 영원한 모음母音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고 늘 새롭기만 합니다.

그 아득한 소리가 들려오면 가끔 일을 하다가도 멈춥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입니다. 기대는 것이 이때처럼 아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고 기대지 않는 것이 사원의 생활 규범이 되어 있지만, 마음은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저 무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복淨福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아득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존재에 대해 새삼스레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합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나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눈에 띄는 영역보다 뚜렷하게 비쳐 오고, 영원한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음을.

법정 스님은 1970년, 그해 5월을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영원한 것이 현실적인 것보다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 해 뒤엔 부처님 오신 날의 뜻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라봅니다. 글은 짧지 않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실기는 긴 글이지만 사월 초파일

이든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스님 쓰신 대로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들 몸에서도 붉은 피 대신 연둣빛 수액樹液이 흐르는 5월,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정결한 학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고 ‘휴우 휴우’ 고개를 넘어 산사를 찾는다. 눈을 반만 뜨신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며 나뭇이 엎드려 절을 한다. 그것은 종교로 굳어지기 이전의 소박하고 경건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초여름의 산사는 날마다 잔칫집처럼 들떠 있다. 메마른 세정世情에도 푸근하게 인정이 배는 연둣빛 잔치다.

사월 초파일!

이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대자대비大慈大悲의 큰 뜻에서 중생을 건지려고 인도의 카필라 정반왕淨飯王의 태자로 태어나신 날이다.

부처님이란 뜻이 ‘깨달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볼 때, 부처님 오신 날은 차라리 보리수 아래서 성도成道한 그날 이어야겠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육신으로 몸을 나타내신 초파일을 오신 날로 치는 것이다.

그날 어머니 마야 부인은 해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도중 룸비니 동산 무우수無憂樹 꽃가지 아래서 태자를 낳았다. 태자의 탄생은 2500여 년 전 정반왕궁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영광이며 모든 중생의 희망이었다. 인간사人間史에 새벽이 온 것이다.

부처님은 몸소 인간의 길을 걸었다. 중생의 번뇌가 부나비의 그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닦아 스스로의 맑은 심성을 드러냄으로써 본래적인 자기로 귀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온 인류가 이날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것은 한 교조의 탄생에서보다도 우리들의 존재 의미와 인간의 갈 길을 열

어서 지혜의 눈을 떠서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모든 중생에게 환하게 비추어지이다.

어 보인 큰 스승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초파일 날 절에서는 두 가지 큰 기념 행사가 있다. 하나는 탄생의 시각인 정오에 부처님[佛像]을 목욕시키고 불공을 드리는 일. 그래서 이날을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는 밤에 등불을 밝히는 연등燃燈이 그것이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 주는 실용성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중생의 어둠을 어리석은 생각, 즉 무명無明을 밝게 하는 지혜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뜻에서 불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때 불자佛子들은 이렇게 속으로 염원한다.

‘어서 지혜의 눈을 떠서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모든 중생에게 환하게 비추어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연등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성행되던 것이 고려 중엽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민속화되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 교단의 위축에 따라 더러는 주춤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연면히 전승되어 온 겨레의 잔치다.

요즘은 등도 상품화되어 손쉽게 사서 켜다. 하지만 예전에는 저마다 정성을 담기 위해 손수 만들어 집집마다 켜다. 《현우경賢愚經》에는 가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켜 조그만 등은 부유한 국왕이 밝힌 크고 많은 등이 다 꺼진 뒤까지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았다 하여 그 신심과 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빈자貧者의 일등—燈’이란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초파일의 극치는 물론 밤에 있다. 어둠이 내려 팔모등·수박등·연꽃등·학등에 불이 켜지면 절간은 삼시간에 꽃밭을 이룬다. 산사의 탑돌이와 도시의 제등 행렬로 초여

부처님은 길을 찾아 나섰고 길 위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르치다가 또한 그 길에서 돌아가셨다.

름 밤은 마냥 설렌다. 그런데 부처님은 지붕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노상路上에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길을 찾아 나섰고 평생을 길 위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르치다가 또한 그 길에서 돌아가셨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자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탐욕과 분노와 우치로 뒤엎힌 이 혼돈의 세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 제자의 마음은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다. 분단된 채 살기 띤 눈으로 맞서 있는 조국의 표정은 어둡고 슬프다. 지금 이 시각에도 베트남 전선에서는 죄 없는 목숨들이 무수히 숨져 가고 있으리라. [법정스님은 이 글을 1971년에 썼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고 1971년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군 4만 7860명이 있었다. 1973년에 모두 철수하였다.]

피부색이 자기네와 다르다는 이유에서, 오로지 그 이유에서 같은 인간을 할퀴고 짓밟는 문명국이 우리 이웃에 아직도 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기엔 우리들 양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쓰디쓴 입술로는 차마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노래할 수 없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함께 길을 가기 위해 만난 것이다.

현대는 신화시대도 존재론 시대도 아닌 기능 시대이다. 이런 때 부처님이 발붙일 곳은 적막한 산골이 아니고 생동하는 세속 도시일 것이다. 소비적이고 들뜬 걸치레뿐인 경축 행사가 부처님 뜻에 맞을 리 없다.

이 시대와 사회가 뚫고 나아갈 길을 보이고, 그 제자들

여래如來란 진리에서 온 사람, 진리에 의해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보인 사람이다.

이 몸소 지혜와 자비의 길을 구현하는 데에서 오늘의 부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본질적인 자각이 앞서야 할 것이다.

여래如來와 오신 날

지난해부터 불탄일佛誕日을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르게 됐다.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고쳐 부른 것은 국무회의 의결이 있은 뒤 2018년부터다. 그러나 덕조 스님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이미 1970년부터 이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편집자] 부처님 나신 날 혹은 생일이라 하지 않고 굳이 ‘오신 날’이라 한 데에는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부처님[釋尊]의 육신이 2500여 년 전 카필라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태자로서의 탄생을 외면적인 현상으로만 볼 때, 탄생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냐면, 부처님은 개안開眼의 날인 성도成道를 통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초역사적인 사실 혹은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탄생이 주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부처님을 가리켜 여래如來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오신 날에 대한 의미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래를 범어로 타타가타tathāgata라 한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보는 데에 따라 그 의미는 각기 달라진다. 하나는 타타-가타tathā-gata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타타-아가타tathā-āgata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은 ‘진리[如](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고, 뒤의 것은

그의 탄생은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닦고 세워 온 하회중생下化衆生의 비원非願을 이룬 것이다.

‘진리에서 온 사람’, 즉 진리에 의해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보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전자는 역사적인 사실에 착안하고, 후자는 그 상징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역漢譯에서 여래라고 한 것은 후자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태자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고, 무량겁을 두고 닦고 세워 온 하회중생下化衆生의 비원悲願이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이란 표현이 여래의 뜻과 동일할 뿐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 밖의 안목이 있다. 물론 청정한 자성自性의 입장에서 보면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문 것도 아니지만, 그 작용인 육신은 분명히 오고 간다. 그러므로 오신다는 것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그렇게 시현示現한 것을 말한다. 부처님 스스로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 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다.

불전 설화佛傳說話에 의하면 부처님은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고 한다. 산월이 되어 친정으로 가는 길에 마야 부인 일행은 룸비니 동산에서 쉬게 된다. 마침 가까운 곳에 무우수라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왕비는 그 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쳐든다. 그 순간 옆구리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옥동자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탄생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말일까 하고 가우뿔하게 되는 것은 우협 탄생右脇誕生이 상식 밖의 일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들 현재의 인식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상식 밖의 일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사실 여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신성한 인격의 탄생을 우리들 범부의 경우와 똑같이 본다는 것은 예전 사람들에게는 무엄하게 여겨졌을지 모른다. 그래서 동정녀童貞女가 혼자서 아이를 수태하게 된 신화神話도 마련될 수 있다.

부처님이 탄생할 무렵의 인도 사회는 바라문들이 정신적인 영역을 지배하던 때이다. 그들은 자기네 계급의 신성神聖을 내세우기 위해 허구를 가설했다. 그래서 바라문 종족은 자기네가 숭상하는 범천梵天的 입에서 태어났고, 제2계급인 왕족은 범천의 옆구리에서, 제3계급인 서민들은 오금에서, 불가촉 천민인 제4계급은 범천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했다.

부처님은 물론 제2계급인 왕족 출신이다.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는 것은 물론 바라문들이 가설해 놓은 허구에 연유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는 혹시, 부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못마땅해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위대성이 반드시 옆구리로 태어난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인격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아닌 허구의 안개는 걷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이었다. 또한 마지막 열반의 자취도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그런데 탄생만이 유달리 비인간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납득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지혜의 눈을 뜨신 부처님께서서는 자신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오해하지 말라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장아함 1권 대본경》은 이렇게 말한다.

태어나시자 동서남북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걸으신 뒤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인간 스스로가 귀하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 헤매니 내 기필코 구원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我’란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佛性]를 가리킨다. ‘독獨’은 타인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주인, 곧 독립된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의 신神이나 권력,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집착했다.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가장 귀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신神이나 권력, 돈에 외면당하던 인간의 존엄성을 온 천하에 확인하려는 부처님의 대 선언인 것이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고통으로 규정하고, 고통받는 민중을 기필코 깨우치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 계승이라는 점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불교가 제대로 그 구실을 하고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손수 등을 만들어 컸다.

우협 탄생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비친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적어도 원전原典 비판적인 입장에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협 탄생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부처님의 탄생 연대가 공자보다 늦대서야 될 말이나고, 논리적인 근거가 희미한 북방 연대를 굳이 고집하려는 것과 같다. 거듭 말하지만 부처님의 위대성은 언제 어디로 나왔느냐에 있지 않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어야 한다.

사월 초파일이면 절마다 관등觀燈 준비로 일손이 바쁘다. 불제자佛弟子인 우리들이 등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혀 축복하자는 뜻에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신라나 고려 시대처럼 불교가 제대로 그 구실을 하고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손수 등을 만들어 컸다고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런데 분업화되고 기능화된 오늘의 사회 구조 속에서 예전 습성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흔히 절에서 초파일을 빙자하여 등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일부 신도들의, 그것도 양식이 있는 입을 통해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승려들의 지폐 의식紙幣意識에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불자라면 자기 손수 등을 만들어 결 만한 신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정성은 없이 간단히 살 수 있는 길만을 택하기 때문이다. 절에서는 그 수요 때문에 도업道業을 전업轉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량 안에서 얼마짜리 등이 호가呼價

등이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불상앞에만 걸어 두자는 것은 아니다.

된다는 것은 모처럼 기쁜 날에 불쾌한 일이다. 등은 등대로 켜고 등값이 아닌 정재淨財로써 공양하는 예를 어떤 절에서 보고 흐뭇해한 적이 있다. 이런 풍습이 보편화되었으면 싶다.

초파일 밤이면 법당 앞에만 비집고 서로 등을 달리는 신심들을 보는데, 등이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불상앞에만 걸어 두자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절이나 법당 앞과는 달리 법당 뒤는 마냥 캄캄하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부질없는 상相에서 벗어나 청정하게 보내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는 일이 아닐까.

등은 절간보다도 거리나 어두운 길목에 켜서 여러 중생의 발부리를 밝혀 주는 일이 널리 일어났으면 한다. 진정한 불제자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큰 자비의 원력

우리들 곁에서는 여느 봄처럼 꽃이 피고 새잎이 수련수련 피어나고 있다. 꽃가지에서는 무심한 새들이 화창하게 지저귀다. 꽃이나 새는 자체의 생명력과 환경의 조화에 의해 피고 지저귀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도 개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이다.

꽃이나 새뿐 아니라 일반 생물들은 일종의 습관성인 그 업력業力에 의해 생로병사한다. 그러나 자기 존재를 자각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습관이나 타성에 매몰됨이 없이 자신의 의지력으로 살고 또 죽는다. 말하자면 그가 원하는 바에 의해 창조적인 생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는 절대자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자기 존재를 철저히 자각한 ‘눈뜬 사람’이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듯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량겁을 두고 쌓은 구도자의 원력願力에 의한 것이다. 그 원력은 그의 생명 현상이며 존재 의미이다. 중생은 업력으로 몸을 받고 보살(구도자)은 원력으로 몸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다.

2500여 년 전 역사적인 인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형적인 구도자였다. 그는 절대자도 아니고 불가사의한 권능을 지닌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자기 존재를 철저히 자각한 ‘눈뜬 사람’이었다. 대비원력을 지니고 보편적인 진리를 구현한 선지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한낱 예경禮敬의 대상으로 이상화될 수 없는 분이다.

한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 자신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밧칼리라는 비구가 병들어 왕사성 밖한 도공陶工의 집에서 앓는다.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회복할 가망이 없다. 환자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곁에서 간호하던 도반을 불러 그의 마지막 소원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지금 죽림정사에 계시겠지요? 내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보다시피 나는 회복할 가망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부처님을 뵈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스님이 제 소원을 부처님께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은 예정된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그 길로 도공의 집을 방문한다.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

너는 이 무너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찌하는 거냐.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아라.

자 환자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때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누워 있도록 만류하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잡고 위로를 하신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약은 먹었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병은 날로 더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고 하직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부처님은 조금 전까지 그토록 인자하던 태도와는 달리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뱃칼리여, 너는 이 무너질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찌하는 거냐. 명심하여라.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아라. 진리를 보는 자는 참으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끝에 뱃칼리는 문득 깨닫게 됐다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은 흔히 부처님을 예경의 대상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받들고 섬긴다는 일이 오히려 부처님을 이상화하고 욱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신을 보려거든 진리를 보라는 이 말씀의 뜻은 45년 설법에 일관된 정신이다. 진리를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유훈遺訓과 같은 뜻이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인류 역사상 여러 성자들에 의해 그때마다 많은 교훈이 펼쳐졌지만, 자기 존재를 자각케 한 이 교훈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르침일 것이다.

불타의 출현은 미망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인간의 길을 환히 비춰 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 면목本來面目이 어떤 것인가를 자각케 하는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거대한 물량의 틈바구니에 끼여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오늘날, 도시화되고 산업화될수록 인간 부재의 현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병든 이 문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모색해야 할 과제이지만, 인간 존재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고 또 남에게 깨닫게 하는 종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부처님의 화신化身임을 자각, 스승의 대비원력이 곧 나의 원력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그날그날의 행동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의 구현자가 될 때, 부처님은 새삼스레 오실 것도 가실 것도 없이 무량광無量光과 무량수無量壽로서 상주하게 될 거라는 말이다.

가난한 등 하나 / 길상사연등



가난한 절에 걸린 가난한 등 하나

오늘 길상사에 등이 걸렸다. 법당에도, 뜰에도, 나무 위에도 어둠을 부수는 등이 걸렸다.

부처님 시절에도 등을 걸었다. 밤이 깊어지고 기름을 다 태운 등이 하나둘 꺼져 갈 때 더 밝게 빛나는 등 하나가 있었다. 가난한 여인이 오직 믿음과 정성으로 켜 작은 등, 빈자일등(貧者一燈)이었다.

등은 어둠을 밝힌다.

생로병사는 어둠에서 비롯된다. 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지면 집착도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시작된다. 고통하면 밝아 온다, 열반이다.

부처님이 새삼스레 오실 것도 가실 것도 없이 무량광(無量光, 무량수(無量壽)가 늘 그곳에 있다고 법정 스님은 말했다.

가난한 절 길상사에 오늘 끝없는 밝음, 끝없는 생명이 함께하여지이다.

사랑의 기쁨 이해인 수녀

장미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시마저 없다면 세상 욕심에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이 너무 기쁜 이유도 꼭 같지요, 외로움마저 없다면 세상을 모두 태워 버릴 테니까요, 5월, 사랑의 기쁨을 수녀님과 함께 하시길.

사랑의 기쁨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웃고 싶은 마음

혼자 있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한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무얼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

아픈 것도
내색 않고
끝까지 참고 싶은 마음

장미를 닮은
사랑의 기쁨이겠지
가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랑의 기쁨이겠지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2021년 '맑고 향기롭게·대학 장학사업' 안내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어려운 형편임에도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계발할 수 있도록 20여 명의 불자대학생을 선정해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넓히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해 인연을 맺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766명 중, 고, 대학생에게 약 11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류 심사 : 4월 27일(화)
- 면담 평가 : 5월 9일(일)
- 선정 발표 : 5월 21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 행정과 통보
- 장학증서 수여식 : 6월 8일(화)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맑고 향기롭게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단체 표창 시상

3월 29일 제22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에서 '맑고 향기롭게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급식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온 공적과 풍성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 이들이 동행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자원봉사 부문 총무원장 스님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연기되던 중, 최소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식 지원 활동이 중단되어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 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관심 가져 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향기우체부(손 편지 답장) 봉사 활동 안내

향기우체부(손 편지 답장) 봉사는 올해 처음 기획하여 준비하는 활동으로 법정 스님 진영각에 우체통과 공감(고민) 엽서를 배치하여 소소한 고민을 적으면, 봉사자가 손 편지로 위로나 응원의 답장을 하는 활동입니다. 첫 모임은 4월 16일 가졌으며, 답장을 쓸 때 조심해야 할 부분 등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봉사자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가게 '나눔 공양 즉석밥' 판매 의미

사찰에서는 불법승 삼보(三寶)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물(供養物)을 올립니다. 육법 공양 중 음식과 곡식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이유는 씨앗이 크게 자라서 삼계의 괴로움을 해탈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역 사회복지관과 급식소에서 식사가 중단되면서 취약 계층은 당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길상사에서 대중 공양이 중단된 이후 공양미로 떡을 해서 나누거나, 결손 가정에 나누고 있지만, 100% 소비가 어렵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맑고 향기로운 가계(불교용품 판매점)에서 공양미를 대신해 나눔 공양(즉석 현미, 잡곡밥)을 판매하여 불전에 헌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일주문에서는 공양미 판매함). 나눔 공양(즉석 현미, 잡곡밥)은 부처님 전에 헌공 후 내려지면 쪽방, 노숙자, 장애인 등 식사를 하기 어려운 복지 취약 계층에 나누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불, 보살과 중생이 하나 되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운동 안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려는 취지로 본회 초창기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 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 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 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인 성금은 전액 결식 후원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후원 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맑고 향기롭게 / 동참금: 최소 10,000원 이상 (계좌입금시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 주세요.)

5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4일(화)/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봉사자 교육 및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향기소리 모자 뜨기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승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33독기도 일시: 5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일시: 5월 5일(수)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5월 12일(수)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춘계 관음기도 회향 일시: 5월 25일(화)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하안거 결제 및 백중기도 입재 일시: 5월 26일(수)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5월 29일(토)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오식

· 일시: 5월 1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관불 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공양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등 접수하신 분은 등표 사진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극락전(법당) 어간등 100만 원

| 극락전(법당) 연등 | | 도량(마당) 연등 | |
|------------|-------|-----------|------|
| 가족등 | 10만 원 | 가족등 | 3만 원 |
| 영가등 | 10만 원 | 영가등 | 3만 원 |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 기도명 / 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기도 | 5월 1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관음재일 | 5월 5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초하루기도 | 5월 12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5월 26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5월 29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극락전 기도 | 매일 |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 극락전 |
| 지장전 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증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